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2018. 1. 18.(목), 15:00
2. 장 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1	우정원, 이주희, 임원정, 임혜숙, 유제욱, 차안나, 문지영, 김영주, 이정화, 안홍식, 장남수	김희선(간사)
불참인원	1	정연화	

4. 안 건

- 제1호의안: 의장, 부의장 선출의 일
- 제2호의안: 의료원 2018학년도 예산안 자문의 일

5. 개회선언

- 가. 간사는 제5기 대학평의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리다.
- 나. 오늘 정연화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성원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6. 안건심의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의장, 부의장 선출의 일

- (1) 간사는 대학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장, 부의장 선출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설명한 후 지난 선출방식과 같이 전체 평의원을 후보로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의장으로 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득표자 두 명(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인원 포함)을 후보로 2차 투표를 진행하여 다득표순으로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하다.
- (2) 우정원 평의원이 투표 성원에 대해 묻고 간사는 과반수 출석임을 답하다.
- (3) 장남수 평의원이 그동안 교수평의원 중에서 의장을 하셨는지에 대해 문의하여 간사는 지난 번에는 교수평의원이 의장을 하였음을 답하고, 김영주 평의원이 3기에서도

교수평의원이 의장을 하였다고 답하다.

- (4) 우정원 평의원이 투표방식에 대해 입후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호선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임원정 평의원이 입후보방식도 좋을 것 같다고 답하다.
- (5) 간사가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자, 김영주 평의원이 추천방식에 의한 투표를 제안하고 임원정 평의원이 입후보방식은 자천타천 입후보를 의미한 것이라고 답하다.
- (6) 간사가 자천타천 추천에 의한 입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는 것을 제안하고, 표결 결과 10명이 동의하여 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 (7) 김영주 평의원이 장남수 평의원을, 이주희 평의원이 우정원 평의원을, 장남수 평의원이 안홍식 평의원을 추천하여 3명의 평의원이 의장 후보로 입후보하고 각자 소견을 발표하다.
- (8) 간사는 평의원 모두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에 자천타천에 추천받은 3명의 후보에 대해 투표하고, 그 외 평의원에게 투표하는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하며, 3명의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의장으로 하고 차순위자를 부의장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여 거수로 표결하고 표결 결과 10명이 동의하여 이 방식으로 1인 1표, 비밀투표로 투표를 진행하다.
- (9) 개표 시 문지영 평의원이 참관하였으며, 간사는 투표 결과 의장 우정원 평의원, 부의장 장남수 평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호의안: 의료원 2018학년도 예산안 자문의 일

- (1) 의장은 제2호의안 의료원 2018학년도 예산안 자문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는 지난 평의원회 회의에서 의료원 예산안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다.
- (2) 의장은 지난 회의록 낭독이 필요하므로 다음부터 지난 회의록을 공식 회의자료로 넣어주기를 제안하여 간사는 다음 회의부터 지난 회의록을 회의자료로 배부하는 것으로 답하고, 이주희 평의원이 회의자료를 미리 주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문하자 간사는 회의자료를 통상 일주일 전에 메일로 송부하나 본 자료는 예산안이어서 당일 배부한 것임을 설명하다.
- (3) 의장은 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회의 진행 참고자료로 의장에게 제공된 지난 회의록 일부를 모든 평의원에게 배부하기를 요청하여 이를 배부하고, 회의 후 해당 자료는 반납하기로 하다.
- (4) 의장은 제2호의안 의료원 2018학년도 예산안 자문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료원 참석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료원 참석자: 이병무 기획예산과장)

- (5) 기획예산과장은 2018년 본예산 총괄표, 수입부, 지출부 순으로 자료를 설명하고 이후 자문을 진행하다.
- (6) 이주희 평의원은 종합병원으로 강등된 것에 기초해서 축소된 예산이 확정된 것인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고, 다른 예산은 다 늘어났는데 재료비 예산만 줄어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 기획예산과장은 종합병원으로 예산을 산정하였고, 재료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는 환자수 대비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 (7) 임혜숙 평의원은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예산안 각각의 항목에 대해 증감 내역을 비교에 자세히 표기해 주어야 내용을 파악하여 자문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다.
- (8) 유제욱 평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도 동일한 예산안으로 상정되었는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세부내역은 보고하지 않고 총괄표만 보고했다고 답하다. 유제욱 평의원은 이어서 내용은 같은 것인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이 최종안이라면 자문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9) 안홍식 평의원은 예산안이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하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는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2월 9일 이사회에 상정된다고 답하다. 이어서 상급병원 지정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확인한 후 예산 관련 노사협상을 진행하는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다. 이에 대해 안홍식 평의원은 임금협상 전 예산인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임금인상은 현시점에서 반영할 수가 없다고 답하다.
- (10) 안홍식 평의원은 기초실장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정확하고 자세한 예산 편성안을 설명하여야 대학평의원회 자문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다. 이어서 수입부에서 의료수익이 줄고, 차입금 증가는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하나, 제예금인출에서 운영자금 170억은 어디에서 오는 지에 대해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갖고 있는 여유자산(2015~2017년 실적 향상에 따른 자산, 새 병원에 대한 적금, 의약품 대금관련 자산)을 활용하면 가능함을 설명하다.
- (11) 안홍식 평의원은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다 쓰는 것인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답하다. 이어서 안홍식 평의원은 차입금은 한번에 모두 차입하는지, 두 번에 걸쳐서 하는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차입금은 차입금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며, 현재까지는 총 차입금을 4,300억을 예상하고 그 중에 2,016억 정도는 차입했고 나머지 2,284억은 2018년 12월까지 차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 (12) 안홍식 평의원은 새 병원 완공이 언제인지 개원 예정이 언제인지를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건축본부측에 확인한 결과 55.5% 진행되어 올 9월말에 완공되며

개원은 내년 1월이나 3월로 예정하고 있다고 답하다.

- (13) 안홍식 평의원은 차입금이 워낙 많으므로, 차입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고, 인건비 증가에 교비 전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포함되어 있다고 답하다. 이어서 안홍식 평의원은 수익은 줄고 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지출은 모두 늘었음을 지적하며, 인건비, 관리예산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줄여야 함을 설명하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은 인건비는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예산 반영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향후 인건비를 줄일 상황이 오면 반영하겠다고 답하다.
- (14) 안홍식 평의원은 금년 결산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12월까지 실적이 좋았으나 1월 초 이후 부진한 상태이며, 언제 이미지가 회복되어 환자들이 늘어날 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답하며, 다행히 외래환자가 다시 늘고 있고 재원환자수도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 편이어서 예산을 거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다. 이어 수치상 관리운영비가 늘어났으나 NICU, ICU 공사비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채들도 NICU 장비구입 등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님을 추가로 설명하다.
- (15) 안홍식 평의원은 새 병원이 올 9월에 완공되는데 개원을 위한 준비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었는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새 병원 예산은 차입금에서 지출한다고 답하다. 이에 대해 안홍식 평의원은 건물, 장비리스 외에 새 병원 운영 준비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원래 이를 위한 운영예산이 있었으나, NICU 사태 발생에 따라 운영예산을 새 병원 운영예산에서 집행하게 되어 이에 대해 확답은 어렵다고 답하다.
- (16) 안홍식 평의원은 정확하게 예산안을 제출할 때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문이 가능하며, 새 병원 개원에 맞추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대해 자구노력을 의료원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다.
- (17) 차안나 평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도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하고, 병원 전입금은 의료원 예산 어디에 포함되는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교원인건비에 전출금 125억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답하다.
- (18) 기획예산과장은 그동안 대학평의원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예산 보고와 그 다음해 총괄표를 보고하였으나, 2018학년도에 한해 12월에 보고를 하지 못하여 좀 더 상세한 예산안으로 보고함을 설명하고 12월에 세부예산까지 산출해서 보고하기는 어렵다고 추가로 설명하다.
- (19) 의장은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2019년도 예산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 일정을 계획하여 달라고 요청하다. 이어서 대학평의원의 자문을 사전에 구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안 자료에 운영지침, 장기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고, 예산 변동에 대한 자료, 추가 자료 등을 보완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요청하다.

- (20) 안홍식 평의원은 이사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수준으로 대학평의회에 예산안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 (21) 이주희 평의원은 종합병원으로 강등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안을 작성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해 해결을 위한 의료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NICU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NICU의 재오픈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공사 등을 포함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종합병원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22) 유제욱 평의원은 인건비 중에 신규로 채용하는 인건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2017 추경예산 대비 23명 증가를 예상하고, 호봉승급분과 연차수당, 임시직급여 인상분을 반영함을 설명하다. 이어 유제욱 평의원은 23명 증가가 새 병원 개원에 따른 인원까지 반영한 것인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비전임교원은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미달 인원이 있어 실질적으로 23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하다.
- (23) 안홍식 평의원은 의료원 전체가 다같이 의논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을 재차 지적하고, 5천억 예산 수준을 고려할 때 계획성 없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사회 통과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 (24)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한번 더 자문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묻자 안홍식 평의원은 이사회 이전에 시간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유제욱 평의원은 등심위에서 의결한 예산을 이사회에서 부결할 경우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회에서 자문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다.
- (25) 의장이 의대교수인 임원정 평의원에게 의료원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임원정 평의원은 의과대학 준비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교수 충원에 대한 계획이 중요한데,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다. 이어서 임원정 평의원은 교수 충원을 위한 인건비, 개원 준비 비용, 새로운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홍보비용 등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다.
- (26) 안홍식 평의원은 의료원 예산안 통과 절차에 대해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의료원 예산안은 경영진 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아직 통과하지는 못하였으나 보고는 하였고 새 병원에 대한 인력 조정이 결정되지 않아 새 병원과 관련된 인건비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다.

- (27) 이주희 평의원은 새 병원이 예정대로 개원이 가능한지 의문을 표하고 임원정 평의원은 의과대학은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어 병원 개원 없이 의과대학만 이전할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병원 개원은 가능한 한 시기에 맞추어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하다.
- (28) 이주희 평의원은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자료를 보완하여 서면으로라도 추가 자문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다.
- (29) 장남수 평의원은 새 병원 개원에 교수 충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고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임원정 평의원은 새 병원 플랜에 따른 예산안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다.
- (30) 의장은 예산안 자문을 끝내고 수용하는 방법과 자료를 보완하여 회람을 통한 자문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평의원들에게 제안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새 병원과 관련한 인력 충원 및 인력 조정 등은 의료원 경영진들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본예산 편성에는 어려움이 있어 향후 추경 예산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설명하다.
- (31) 안홍식 평의원은 새 병원 관련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해하나,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다. 이어서 안홍식 평의원은 이번 자문은 마무리하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의료원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을 이사회 보고자료와 동일하게 대학평의원회에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동일한 수준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하다.
- (32) 김영주 평의원은 인력 관련 계획의 어려움 및 의료원 예산 편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동감을 표하다.
- (33) 의장은 2019년 예산안은 미래운영전략 및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올 12월에 진행하기로 하고, 가능한 추경예산을 빨리 편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평의원들은 이에 동의하다.
- (34)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어 의료원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나. 기타사항

- (1) 간사는 총학생회가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한 협의테이블을 요청한 사항이 있어 제5기 첫 회의에서 대학평의원회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의장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필요할 것으로 답하다.
- (2) 의장은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번 회의에서 할 지 차기 회의에서 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차안나 평의원은 본 회의에서 대학평의원회 개선을 위한 논의자료를 배부한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요청하다.
- (3) 의장은 논의를 언제 할 지에 대해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평의원들이 답하여 의장은 차안나 평의원에게 배부 자료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요청하고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하기로 하다.

(4) 차안나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와 함께 학내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는 중요한 기구임을 말하고, 현재 본교의 대학평의원회가 폐쇄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대학평의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 개설 및 대학평의원회 구조 개선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평의원들에게 요청하다.

- 1)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를 보직교수, 교직원, 동문, 학생으로 구성
- 2)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 각 구성원의 동수 구성
- 3) 대학평의원회의 폐쇄적이고 형식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 4) 참관인, 속기록 작성 허용
- 5) 대학평의원회 심의기능 강화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18년 1월 18일

의 장 우 정 원

